

<글말교실 소감문>

2021학년도 글말특강을 수강하며 글쓰기 전략부터 글 쓸 때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저는 1회차부터 9회차까지 빠짐없이 강의를 수강하였으며, 수강기간 동안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글쓰기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.

9회차 강의 모두 좋은 수업이었지만, 그 중에서도 저는 1회차 수업이 인상 깊었습니다. 1회차 강의들 중 노영근 강사님의 '글쓰기, 가볍게 시작해서 익숙해지기2'란 강의에서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. 강사님께서 글을 쓸 땐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셨습니다. 어렸을 때에 비해 자기소개서나 공모전과 같이 글을 길게 써야 할 일 이 많아지며 글쓰기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던 제게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였습니다. 평소 제가 쓴 글을 지인에게 보여주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지적이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. 글에서 다루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글을 쓰는 저와는 달리, 읽는 이는 모든 내용이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세심하고 문장들 간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

사실 저는 이러한 지적을 많이 받고도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. 정보를 많이 넣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글에 불필요한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거나 글이 늘어지곤 했습니다. 이러한 어려움을 겪던 제게 있어 글말특강은 해결책이 되어주었습니다. 1회차 수업에서 읽는 이를 배려하는 글쓰기를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며, 이 강의가 저의 글쓰기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실제로 강의를 들으며 전달력 높은 글을 쓰는 법부터 창의적인 글쓰기, 나의 생각을 담는 글쓰기, 그리고 소통으로서 글쓰기까지 다양한 글쓰기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.

강의 내용에 대해 만족도가 높으며 다음에 또 글말특강이 열린다면 수강하고 싶습니다. 다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다른 학우들과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대면으로 진행했다면 함께 강의를 수강하는 학우들과 궁금했던 점을 서로 공유하고 느낀 점을 나누며 시야를 넓혀갈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습니다.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대면으로 진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강의라고 생각합니다.

또한 글말특강이 있다는 것조차 잘 알지 못하는 학우들이 글말특강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다면 유익한 강의를 더욱 많은 학우들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 학교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본 특강에 대해 접할 수 있었지만, 그렇지 않은 학우들은 접하기 어렵습니다. 더욱 많은 학우들에게 글말특강이 알려지기 위해선 학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러한 특강이 소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2021년 신입생으로서 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 교내 동아리와 학교시설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지만, 글말특강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선 접하기 어려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룬다면 2022년 신입생 학우들에게

특강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.

제게 있어 글쓰기란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자 온전히 내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으며, 지금도 글을 통해 저의 하루하루를 기록합니다. 하지만 저는 이 특강을 통해 나 자신만을 위한 글을 넘어 타인과 소통하는 수단으로써 글을 쓰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오랜 시간 동안 막연히 혼자 가지고 있던 글을 잘 쓰는 법에 대한 갈증을 글말특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 역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.